

# 계육산업뉴스

## Broiler industry

대한민국계육협회 (KOREA CHICKEN COUNCIL)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이재하  
(우 463-05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수의과학회관 402호)  
(0342)707-5722 ~ 4 FAX (0342)707-5725  
기획편집 : 만지미디어 (02)2263-3598

5  
1999

제5권 제5호 통권47호

-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 계육인의 자긍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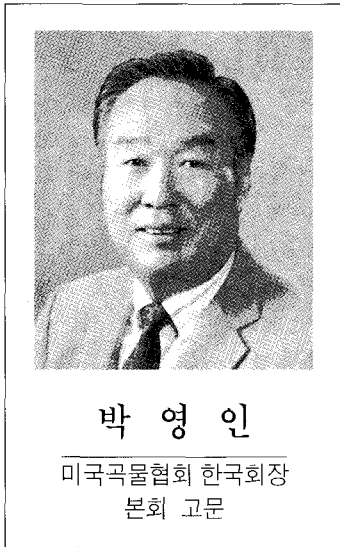
한국의 계육인은 이제 긍지를 가질 만하다. 계육산업이 새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골격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요즘은 대기업이 구조조정 하느라 나라경제가 혼란스러운데, 계육산업은 이미 90년대에 접어들어 통합체계(계열화)로 틀 바꿈을 본격화한 결과 이제는 그 가닥이 잡힌 것이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직업과 삶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계육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즉 종계, 부화, 사료, 약품, 사육, 도계, 가공, 유통, 무역, 외식부문과 그를 뒷받침하는 교육, 연구, 언론, 행정 등 모든 종사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계육산업이 이 정도로 구조개혁하여 21세기의 세계경쟁 속에 뛰어 들 수 있게 만든 그 동안의 공동노력에 대하여 모두는 자찬하고 기뻐할 만하다

하기야 아직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없는 산업도 있던가. 문제는 풀어 가면 되는 것이다. 계육인의 일생 자체가 문제해결의 과정(problem solving process)이다. 한국 계육산업은 국제경쟁력이 없으므로 계산물은 홍수같이 밀려와, 계육인에게는 앞날이 없다고 낙망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하나의 단점만 걱정하고 아홉의 장점은 살릴 줄 모르는 사람의 말이다.

21세기에는 여차피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된다. 남의 닭고기가 우리시장에 들어오고, 우리 닭고기가 남의 시장에도 간다. 물론 기술(품질), 경제(가격), 소비자 기호(고객 서비스)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체계, 인력(기술과 경영), 잠재시장을 고려하면 세계 경쟁에서 이겨 승자가 될 수도 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산업체계(계열화 조직)는 겨우 골격(hardware)만 조정한 상태이고, 금후의 과제는 그 체계를 합리적으로 경영(software)하는 일이다. 모든 자원을 잘 배치, 활용하고 수요시장을 확대하는 경영능력(계열체계의 효율화 운영)을 발휘하면 그것이 바로 4P대책(가격, 품질, 유통, 소비자서비스)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계열체계는 M&A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미 많이 보아온 터이다.



박 영 인  
미국곡물협회 한국회장  
본회 고문

앞으로의 경쟁은 확실한 두 단계를 거칠 것이다. 첫번째는 국내, 두 번째는 국제단계의 경쟁이다. 통합경영을 잘하는 상위 여러개의 계열화 업체가 국내경쟁에서 이기고, 그 가운데 몇 업체는 국제경쟁에서도 견디어 낼 것이다. 세계화의 진도에 따라서는 이 두 과정이 동시에 전개 될 수도 있다. 틈새시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다가올 이 냉엄한 현실을 예견하고 계육인 모두는 긴장하면서 실사구시적인 대책수립에 서둘러야 할 줄 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여기서 계열주체의 중책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20년전 통합체계를 소개하고, 10년전 활발한 전개과정에서도 강조했듯이, 오늘날의 산업골격은 개별경영이 아닌 통합경영 시스템이므로, 그 경영주체가 세계 계육시장의 시각

에서 모든 경영전략을 잘 수립/수행해야 한다. 풍랑에 견디지 못하고 파선하면 그 안의 승객이 모두 수몰된다. 계육산업 관련 각 부문 종사자는 자동차의 부품생산자와 같고, 계열주체는 그 부품 하나 하나를 모아 조립하는 자동차 메이커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계열주체는 고객만족을 전제로 하여 차체를 설계하고 차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별 부품을 제작/발주하는 등 최종상품인 자동차(계육)의 생산, 판매를 총괄, 책임져야 한다.

계열주체는 그 자체경영이 자신의 체계에 참여하는 모든 계육인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신선계육, 인터넷 판매, 계육수출, 소비홍보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계열경영을 잘해 나가면 경쟁력을 상당히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가 생존하고, 계열 참여자에게 공정한 배분 할 때, 세계시장에서 공생공존하게 될 것이다.

자긍심을 갖고 매사에 임하면 안될 일이 없다.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계육인은 반드시 세계시장의 주인이 된다. 21세기의 계육부문은 지식기반산업(knowledge based industry)임에 틀림 없다. 계육인 모두가 각자의 현장에서 최고수준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산업과 스스로를 지켜야 할 것이다.